

후진국들이 쫓겨나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북남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과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붙는 불에 기름이 되는 격으로 불어대고 있다.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중상모독한 인간 쓰레기들과 그것을 목인조장한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한 인민의 치욕은 분노가 화산이 되어 북남공동선언문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이...

파라시스코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걸어치울데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대결광신자들이 상전과 함께 《비질런트》에 《기념》을 대신하는 련합공중훈련을 강행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에 만연된 《COVID-19》 사태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지 않다. 5월에는 서해해상에서 비행기와 함선들을 동원하여 합동훈련을 벌이고 지난해 11월에는 동해상에서 신형다목적잠수함 《천무》와 각종 전투함선, 추적기 등을 동원하여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북해공군합동사격훈련을 강행하고 공개하는 놀음을 벌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련이어 《북공군의 침투상향》에 대비하여 《KC-330》공중급유기, 《KA-1》공중통제폭격기 등 50여대의 각종 군용기들을 동원한 대규모공중전투훈련인 《소영 이글》과 공화국의 이등식미사일발사대 등을 겨냥한 대규모공격전대공훈련을 벌여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한 각종 명목의 반공화국대결행사들을 계속 가림이 없이 계속 벌여져왔다. 지난 4월에 북남관계를

파라시스코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걸어치울데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대결광신자들이 상전과 함께 《비질런트》에 《기념》을 대신하는 련합공중훈련을 강행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에 만연된 《COVID-19》 사태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지 않다. 5월에는 서해해상에서 비행기와 함선들을 동원하여 합동훈련을 벌이고 지난해 11월에는 동해상에서 신형다목적잠수함 《천무》와 각종 전투함선, 추적기 등을 동원하여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북해공군합동사격훈련을 강행하고 공개하는 놀음을 벌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련이어 《북공군의 침투상향》에 대비하여 《KC-330》공중급유기, 《KA-1》공중통제폭격기 등 50여대의 각종 군용기들을 동원한 대규모공중전투훈련인 《소영 이글》과 공화국의 이등식미사일발사대 등을 겨냥한 대규모공격전대공훈련을 벌여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한 각종 명목의 반공화국대결행사들을 계속 가림이 없이 계속 벌여져왔다. 지난 4월에 북남관계를

이번에 북남관계를 파국의 낭떠러지에 밀어넣을 배라살포놀음의 근거에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죄악이 있다. 전연일대에서의 배라살포행위를 또다시 펼쳐놓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주도의 기념행사과 《합동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평가하는 각종 기념행사, 《6.25전쟁》 시기의 이른바 《3대주요전투》인 인천상륙작전, 락동강지구전투, 춘천지구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반공《전승식》과 위로연, 《6.25전쟁》 관련 역사자료특별전시회 등 별의별 잡다한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한다. 지난 조선전쟁은 공화국을 요망치 않고 전조선국을 지배할 야망을 품은 미국이 리승만대통령직을 부추겨 일으킨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이었다. 당시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새 전쟁도발을 위한 광대극

6.25를 계기로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기념》의 간판밑에 반공화국대결광대극을 또다시 펼쳐놓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주도의 기념행사과 《합동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평가하는 각종 기념행사, 《6.25전쟁》 시기의 이른바 《3대주요전투》인 인천상륙작전, 락동강지구전투, 춘천지구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반공《전승식》과 위로연, 《6.25전쟁》 관련 역사자료특별전시회 등 별의별 잡다한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한다. 지난 조선전쟁은 공화국을 요망치 않고 전조선국을 지배할 야망을 품은 미국이 리승만대통령직을 부추겨 일으킨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이었다. 당시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이러한 히스테리적광동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조선전쟁에 대한 쓰디쓴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키기 위한 유치한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이 왜 이런 유치한 광대극을 벌였는가 하는것이이다. 남조선당국이 6.25를 계기로 또다시 각종 대결광대극을 여기저기에서 벌여놓으려 하고있는것은 명백히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흉계의 발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그 무슨 《3대주요전투》를 《기념》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을 재현하는 놀음을 벌여놓으려 하고있는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우리 민족에게 재난을 들

의욕을 날인 6월 25일을 동축에 대한 국도의 적대감을 고취하고 북침전쟁도발소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절호의 계기로 삼아 새 전쟁도발행동을 더욱 다그치려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쫓겨나지 않을것이이다. 더우기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행위와 이를 목인조장한 남조선당국의 배신적치사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가 험악한 국면으로 치닫고있는 때에 벌어지는 대결광대극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행동이다. 지난 조선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리승만역도는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38° 선일대에서 끊임없는 무장도발을 일삼으며 정세를 고도로 격화시켰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당국이

리승만당당의 그 최악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제2의 북침전쟁도발을 위해 미쳐돌아가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죄악을 참미하는것은 그런 최악의 발자취를 다시 밟으려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도발자, 호전세력들은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쓰디쓴 참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침략의 6.25일에는 승리의 7.27이 있었다. 침략과 전쟁, 시체와 죽음을 참미하는자들이 가담될 종착점은 과일의 무덤뿐이며 거기서 듣게 될것은 비참한 장송곡뿐이다. 강현철

리승만당당의 그 최악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제2의 북침전쟁도발을 위해 미쳐돌아가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죄악을 참미하는것은 그런 최악의 발자취를 다시 밟으려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도발자, 호전세력들은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쓰디쓴 참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침략의 6.25일에는 승리의 7.27이 있었다. 침략과 전쟁, 시체와 죽음을 참미하는자들이 가담될 종착점은 과일의 무덤뿐이며 거기서 듣게 될것은 비참한 장송곡뿐이다. 강현철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단죄

남조선인리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주로총, 진보련대, 《불평등한 행정협정 개정 국민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13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단죄하였다. 발원자들은 《정부》가 인간쓰레기들의 배라살포행위를 방치하고 미군의 《사드》 배치와 생화학실험에

해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여 남북관계를 과격으로 몰아갔다고 말하였다. 민족자주를 실현하자면 미군부러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거족적인 반미항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사이의 합의사항을 어느 하나 진척시키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 《국회》가 《미래통합당》 패거리들의 망나니짓으로 초반부터 벼거덕거리고있다. 최근 남조선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전반기의 각종 상임위원회회장과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의 협의의 여러차례 진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비롯한 주요 자리들을 내줄수 없다고 한사오 뻔쳐대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국회》는 초반부터 대결의 무대가 되고말았다. 이렇게 되자 《국회》파 반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은 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자리들을 저들이 차지해버리겠다고 한다. 더욱 가까운 《미래통합당》 패들이 《헌정사의 치욕》, 《류태선은 의회폭력》, 《여당의 독선은 수용

할수 없다.》고 행악질을 부리며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다,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직원이 《사임계》를 제출한다 하며 관리를 퍼운것이다. 이를 두고 남조선항간에서는 《똥물은 개가 거먹은 개 홍보는 격》, 《똥살 بھی 또 되살아나》 라는 야유와 조소가 쏟아져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남조선정치사에서 《국회》를 저들의 독판치마당으로 만들고 각종 반인민적, 사대매국적, 반통일적 악법들을 마구 만들어내던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조상들이다. 보수패당들에 의해 이전 제20대 《국회》도 사상최악의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되어 민심의 규탄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리당략과 리기적인 정치목적직행을 위해

자리를 두고 생떼를 쓰다못해 또다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겠다고 기적날뛰고있으니 남조선민계가 《국회파괴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하는것은 응당 하다고 할것이다. 이것은 《미래통합당》 패들이 입이 닳도록 부르고있는 《고강도혁신》, 《과격적인 변화》, 《민생관련 문제 협의》 라는 것이 민심을 기만우롱하고 재집권야망 실현을 위한 알락한 술책을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권력야심병에는 백악이 무효이다. 남조선에서 당리당략과 권력야심에만 눈이 벌개 돌아가는 정객들에 의해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도 이전 《국회》와 다를바없이 초반부터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식물국회》화되어가고 있는것은 썩은 정치판의 추악한 면모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해주고있다. 정일혁

당국이 남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남조선인리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청년학생단체가 15일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가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약속을 지키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원자들은 《정부》가 남북사이의 합의들을 리행하지 않았기때문에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하였다고 말하였다. 왜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있는가, 더이상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국회》는 남북선언들을 통과시키고 《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전단살포, 군사훈련, 적대행위, 보안법, 위장근로, 내정간섭》 등의 글이 쓰여진 풍선을 박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주장하는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썩은 정치판의 추악한 면모

《국회》사수들을 최강대로 들부시고 바닥에 드러누워 생떼를 부리는가 하면 《장외집회》, 《삼발》, 《삼파》 같은 해괴한 놀음판을 마구 벌여놓아 민사인의 비난을 자아냈것이 바로 한해진의 일이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타고앉아 《법적 변화》, 《민생관련 문제 협의》 라는 것이 민심을 기만우롱하고 재집권야망 실현을 위한 알락한 술책을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권력야심병에는 백악이 무효이다. 남조선에서 당리당략과 권력야심에만 눈이 벌개 돌아가는 정객들에 의해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도 이전 《국회》와 다를바없이 초반부터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식물국회》화되어가고 있는것은 썩은 정치판의 추악한 면모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해주고있다. 정일혁

《국회》사수들을 최강대로 들부시고 바닥에 드러누워 생떼를 부리는가 하면 《장외집회》, 《삼발》, 《삼파》 같은 해괴한 놀음판을 마구 벌여놓아 민사인의 비난을 자아냈것이 바로 한해진의 일이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타고앉아 《법적 변화》, 《민생관련 문제 협의》 라는 것이 민심을 기만우롱하고 재집권야망 실현을 위한 알락한 술책을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권력야심병에는 백악이 무효이다. 남조선에서 당리당략과 권력야심에만 눈이 벌개 돌아가는 정객들에 의해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도 이전 《국회》와 다를바없이 초반부터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식물국회》화되어가고 있는것은 썩은 정치판의 추악한 면모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해주고있다. 정일혁

《국회》사수들을 최강대로 들부시고 바닥에 드러누워 생떼를 부리는가 하면 《장외집회》, 《삼발》, 《삼파》 같은 해괴한 놀음판을 마구 벌여놓아 민사인의 비난을 자아냈것이 바로 한해진의 일이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타고앉아 《법적 변화》, 《민생관련 문제 협의》 라는 것이 민심을 기만우롱하고 재집권야망 실현을 위한 알락한 술책을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권력야심병에는 백악이 무효이다. 남조선에서 당리당략과 권력야심에만 눈이 벌개 돌아가는 정객들에 의해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도 이전 《국회》와 다를바없이 초반부터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식물국회》화되어가고 있는것은 썩은 정치판의 추악한 면모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해주고있다. 정일혁

미국에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인사건 또 발생

미국에서 12일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인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현직 언론들에 의하면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백인경찰이 적수공권으로 흑인청년을 억류하던중 총으로 쏘아

살해하였다고 한다. 이날 많은 군중이 그곳에서 백인경찰의 살인행위를 규탄하여 시위를 벌였다. 애틀랜타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굿가야 해당 경찰서장의 사임을 발표하였다

조선지도를 외국발조한 흉악무도한 행위

일본은 과거에 조선을 침략하면서 조선지도의 모양을 외국발조하여 조선지도의 상징화자재를 말살하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로일전쟁에 앞서 조선침략을 위해 조선의 역사, 지리, 유적, 인구, 풍속 등의 조사를 금선부로 내세우고 도쿄제국대학의 건축사, 인류학전문가들과 어용지리학자인 고노 분지로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1900년부터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지령밑에 어용지리학자 고노 분지로가 우리 나라 전반에 걸친 지리조사를 진행하고 1903년에 그 결과로서 《조선산개론》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고노 분지로는 조선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유리하게 조선지도의 모양을 외국발조하였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 지리학자들이 주장해온 백두대산줄기의 도척으로 부정해버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도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외국의 조선지도는 1903년 이후 일본에서 출판된 많은 지리, 문예도서들에 반영되어 류포되었으며 그것은 로일전쟁과 조선전쟁을 전후하여 더욱 로골화되었다.

일본은 1907년에 출판한 지리교과서에서 역사적사실을 들어 일제가 조선지도를 날조한 사실의 부당성을 까뻐하였다. 한 화가는 《근역강산맹호기상도》를 내놓아 조선지도를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 민족의 역센 기질을 반영한 대상으로 숭배해온 용맹한 조선범으로 상징화하여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에 항거해나갔다. 작품에서 화가는 호랑이의 등에 날 줄무늬를 백두대산줄기로, 몸통에 뽀뽀한 줄무늬를 가리산줄기로 나타냄으로써 일제의 백두대산줄기 말살책동을 깃부서버리고 하였다. 당시 외국인들도 조선반도의 지세를 일본인들과 달리 해석하면서 《조선의 산맥은 백두대산이라고 부르는 봉우리를 주봉으로 하는 산맥이 남쪽이 뽀뽀하여 조선반도의 등마루를 이루었다. 이러한 지형상리유로 조선은... 일본에 등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이것이 조선의 역사를 결정하는데서 큰 작용을

유럽에서 노예제도의 상징물을 배격하는 기운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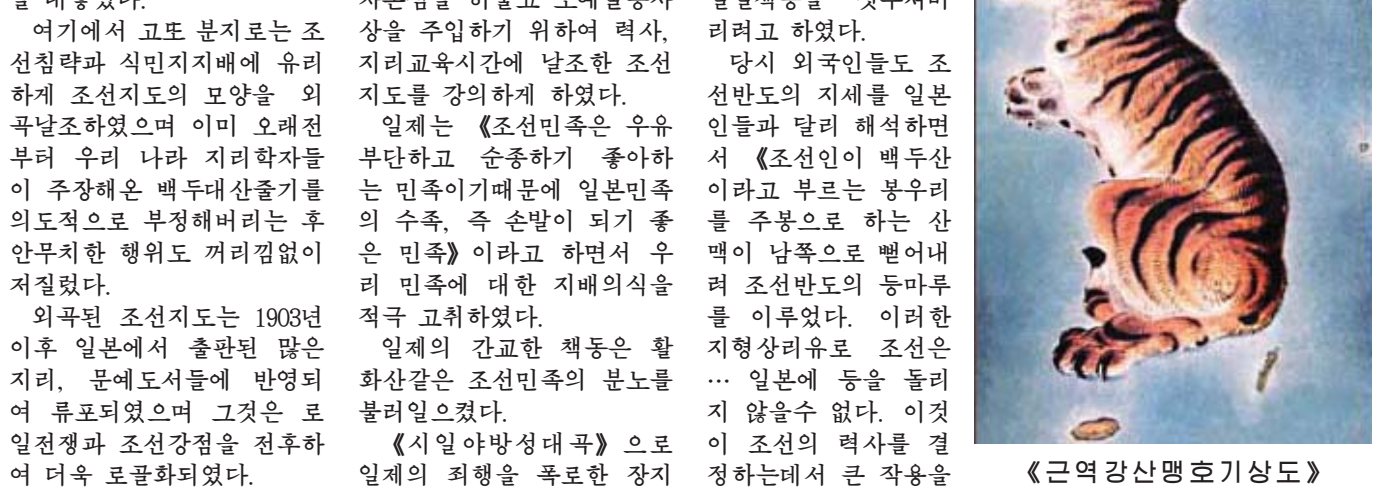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을 계기로 유럽나라들에서 식민지시대의 노예제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의 동상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있다. 얼마전 영국의 런던에서는

18세기 제메이카에서 노예무역에 관여했던 스코틀랜드 상인의 동상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거되었다. 이날 옥스포드종합대학앞에서 약 1000명의 대학생이 아프리카남부의 식민지 지배를 추진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브리스톨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노예상인의 동상을 넘어뜨리고 강에 던졌다. 한편 벨지크에서도 식민지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여러 나라에서 반인종주의 시위 고조



《근역강산맹호기상도》